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22년 표어 §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마 22:37-40)

十 행동 지침 十

- 1. 다시 말씀 앞에(Reconfirm)
- 2. 다시 교회로 (Rebuild)
- 3. 모두 함께 기쁨으로 (Rejoice)

발행인 : 손달익 목사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www.seoulchurch.or.kr



수전절의 변론 I

(요 10:22 - 26)

이종윤 원로목사

주전 168년 시리아의 안티오크스 에피파네스 4세(Antiochus Epiphanes IV)는 예루살렘의 스투바벨 성전에서 제우스(Zeus) 신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로 하여금 우상에게 절하고, 돼지고기를 먹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신앙에 먹칠을 하게 되어 피를 토할 만큼 고통 속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국토를 잃은 것이 슬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이 처참하게 짓밟힌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가슴을 찢는 슬픔을 견디어야 했습니다.

이때에 메디안 지역에서 제사장 집안인 마카비 가족이 아버지와 아들 5형제가 함께 독립운동을 하였는데 이것이 그 유명한 마카비 운동입니다(BC 166년). 기드온의 군대처럼 3천 명의 정예부대를 만든 마카비 군대는 수리아 군인 6만 명과 싸워 마침내 승리를 했습니다. 이 같이 마카비 군대가 승리를 해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여 제일 처음 한 일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하나님께 다시 드린 때가 BC 164년 12월 25일로 수전절의 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수전절은 영어로 하누카(Hanukkah)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날을 'Festival of Hanukkah'라고 하여 굉장한 제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BC 164년 12월 25일을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날이라고 해서 수전절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오늘날까지 기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공생애가 거의 끝날 무렵의 수전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셨습니다.

1. 백성들의 불평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니까”(요 10:24).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행동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을 못 믿는 이유는 자기들의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애매한 태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불신앙과 죄를 예수님께로 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요 10:25 상) 라고 하시며 예수님은 사실 말씀은 모두 하셨다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공생애 3년 동안 행하실 바를 다 행하셨고 가르칠 바를 다 가르치셨으며 수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 곧 메시아 되심을 확실하게 보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태도가 불확실하다고 하며 자신들의 범죄를 주님에게 핑계합니다. 남에게 핑계하는 것은 죄악의 근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얼마나 축복된 삶을 시작했습

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기쁨으로 살던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창 3:3)는 말씀을 어기고 실과를 먹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무 그늘 뒤에 숨어있는 아담을 찾아오시어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어찌하여 네가 이 실과를 먹었느냐?” 그때 아담은 하나님이 지은 여자가 먹었다고 해서 먹었다고 합니다. 죄를 범하고 남에게 핑계하는 것은 아담 이후 범죄 한 인간의 표상이요 특징입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들의 불신앙을 예수님께 전가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일 1:9). 하나님께서는 불신앙의 죄를 남에게 핑계하는 죄를 범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 용서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가셔도 성경을 기록하며 감옥을 성소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환경을 얼마든지 다르게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렘 8:20)의 말씀으로 불신자들을 일찍이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누구보다도 논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신자는 스스로를 논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논리로는 그들은 가장 비논리적인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믿을 수 없는 이유가 예수님 자신의 분명한 말과 행동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말씀하시기를 ‘할 말을 다하고 보여줄 것을 다 보여 주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불평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의 논리와 하나님의 논리는 그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남이 보기에 신앙이 좋은 것 같고 교회에서 굉장한 직분을 받았다 해도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사람은 믿음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불신앙의 특징은 불평과 원망과 책임 전가입니다.

유대인들은 수전절에 성전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변론을 하며 불신앙의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다음주 계속)



코로나19 - 교회 전체 방역 강화

교회 모든 출입문에서 자율적 발열 체크 교회학교에서도 학생들 체온 체크 중 8층 만나홀 안전 좌석제 실시 중

우리 교회는 여름철을 맞아 다시 재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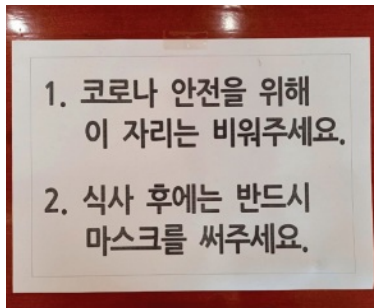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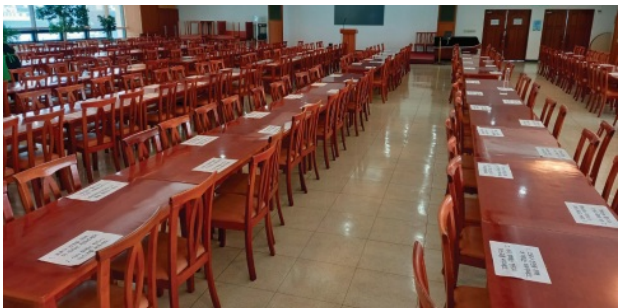
7월 24일(주일)부터 교회 모든 출입문에 발열 체크기를 다시 설치하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이 간편하게 본인의 체온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교회학교에서도 휴대용 체온계로 교회학교 학생들의 체온을 재고 있으며 식당에서는 좌석을 지정하여 식사하는 성도들이 밀착하여 앉지 않도록 하였다.

본당은 코로나 발생 이후 지금까지 성도들이 좀 더 안심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계속하여 예배 후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성도들께서도 본인의 건강 상태를 잘 확인하여 일반적으로 알려진 코로나 증상이 나타나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오셔서 반드시 마스크(KF 80 이상)를 항상 쓰고 있어야 한다. 또한 가까이 서서 이야기하거나 악수를 하지 마시고 안전거리를 두고 목례로 인사하시기 바란다.

식당에서는 예배에 꼭 필요한 인원만 식사하도록 하고 안전 좌석을 반드시 지켜 앉고 식사 중에는 대화를 금하고 식사 후에는 즉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란다.

모든 성도들의 이러한 노력과 희생으로 하루속히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



2022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 은혜롭게 마무리

청년부 여름수련회 8.12(금) - 13(토), 아가페타운

2022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8. 12(금)-13(토)에 있을 청년부 여름수련회를 끝으로 은혜롭게 마무리된다.

7월 16일(토) 영·유아부, 유치부, 사랑부를 시작으로 한 달간 진행된 여름성경학교·수련회가 큰 어려움 없이 은혜롭게 진행된 것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담당교역자,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많은 노력과 참여에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하는 시기에 남은 순서 모두 안전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성도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제	일시	장소	담당교역자
청년부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	8/12(금) - 13(토)	아가페타운	안용곤 목사

2022 성경암송대회

11월 12일(토) 일반부 본선 / 11월 13일(주일) 교회학교 본선 잠언 1장 - 8장

2022년 성경암송대회 범위와 일자리는 다음과 같다. 올해도 많은 성도들의 참여 바란다.

- 일시 : 11.12(토) 일반부 본선
11.13(주) 교회학교 본선

- 범위 : 잠언 1장-8장
(4년간 잠언 전 장 암송)

- * 부별 대상 수상자는 11월 13일(주) 찬양예배 시 암송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 계좌는 다음과 같다.

- *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광고

신속한 교회 행정을 위하여 이사 등 주소 변경 시는 즉시 사무국이나 교구목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30 도고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3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 비전2030 도고팀장 고선욱 권사
010-3344-6400

- 기도 대상자들

권동영 김종훈 김재용 김요한 이상민 한지원 심중규 문영훈 이준우 정건 경건웅 이강현 이진우 유동연 심준규 허성강 장하람 최윤학 백승규 중위 황수지 소위 안지훈 중위 이연희 대위 이예희 하사 문창희 중사 김정균 소령

예배위원 모집

주일 1. 2. 3부 예배, 찬양예배 안내 위원
주일 1. 2. 3부 봉헌 위원을 모집한다.

- * 문의 : 채교천 집사 (010-6444-2502)

식당이용 안내

- 배식 시작 : 오전 11시
- 배식 종료 : 오후 1시 10분
- 모든 식기 반납 : 오후 1시 25분

- * 잔반을 남기지 마세요.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줄이고 설거지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과 남을 배려하는 서울교회 교인들이 됩시다.

교회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입니다!



천국시민 양성 - 청년부 여름수련회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



오원중 성도
(청년부)

안녕하세요. 서울교회 청년부에서 총무를 맡고 있는 오원중입니다.

저희 청년부에서는 8월 12일부터 13일까지 1박 2일간 여름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3년 만에 아가페타운에서 수련회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개인적으로도

많은 기대가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5-6절 말씀을 가지고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며, 첫째날 저녁 집회 때는

손달의 담임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실 예정입니다.

이틀 동안 3개의 실내·외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고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주제로 특강도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이번 수련회를 통해 저희 청년부 구성원들이 지쳐있는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청년부 수련회를 위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청년의

시기를 지나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수련회 역시 온전하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이 나의 삶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일정이 될 수 있도록 임원단과 목사님, 선생님, 리더분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혹시 주변에 생각나는 청년이 있다면 청년부 수련회를 알려 주세요. 청년부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천국시민 양성 - 중·고등부 여름수련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청소년



중·고등부 여름수련회가 지난 7. 22(금) - 23(토)까지 교회에서 은혜롭게 열렸습니다. 코로나가 갑자기 확산되는 상황으로 부득이하게 아가페타운이 아닌 교회에서 방역에 힘쓰며 은혜로운 시간을 진행하였습니다. 담당교역자님들과 교사, 학부모, 그리고 참가한 중·고등부학생들에게 감사드립니다.



eco하지 않은 eco백? 친환경적이지 않은 텀블러?



- ① 영국 패션디자이너 안야 힌드마치(ANYA HINDMARCH)
- ② 안야 힌드마치가 디자인한 최초의 에코백
- ③ 안야 힌드마치가 디자인한 플라ستيك백

집집마다 서너 개는 가지고 있는 캔버스 천으로 만들어진 백. 일명, 에코백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2007년 영국의 패션 디자이너 안야 힌드마치(ANYA HINDMARCH)가 한 자선 단체와 함께 영국의 유명 슈퍼마켓인 세인스버리에서 '비닐봉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재사용할 수 있는 천 가방을 들자'는 취지로 한정판으로 5파운드(약 7000원)에 가방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한번 쓰고 버리는 비닐봉지 대신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가방, 재생 가능한 소재를 사용해 오래 쓸 수 있도록 튼튼하게 만든 가방 그리고 가방의 앞면에는 'I'm Not A Plastic Bag(나는 비닐봉지가 아니다)'이라는 문구도 큼직하게 새겨 넣었다.

그리고 환경, 생태를 뜻하는 '에콜로지(ecology)'의 앞 글자를 따와 '에코백(ecobag)'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부터는 다양한 디자인의 에코백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13년이 지난 2020년에 이 디자이너는 'I'm A Plastic Bag(나는 비닐봉지다)'이라는 문구를 넣은 페플라스틱에서 추출한 비닐로 만든 가방을 만들어 판매를 합니다.

왜 이런 프로젝트를 펼쳤을까요?
그녀는 동물에 해가 되지 않고, 일회용 비닐 대신 여러 번 재사용할 수 있는 에코백의 의미가 변질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에코백은 131번은 사용해야 친환경적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코백은 단지 유행을 따르는 그래서 한두번 들고 마는 가방이 아니라 자주 사용하고 일상적인 가방이어야만 친환경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텀블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국적 커피 브랜드는 매 시즌 계절별로 혹은 기념일에 맞춰 다양한 텀블러를 제작,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소비자들은 이 텀블러를 사서 고이 모셔 둡니다. 친환경적인 제품에 전혀 친환경적이지 않은 구매 행동입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하반기부터 교회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교회에서는 일회용 컵은 계속 사용되고 집에는 텀블러가 고이 모셔져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텀블러와 에코백은 전혀 친환경적이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집에 잠들어 있는 텀블러와 에코백을 깨워주세요. 6초에 1개씩 버려지는 플라스틱 병(영국 환경청 발표자료)을 대신하여 우리 다음세대가 살아갈 지구를, 환경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유은경 집사(편집부)

동 정

- 득녀 : 9교구 김경태 성도 · 정희에 성도 가정 (김철호 성도 · 안미경 권사 장남 가정) 7월24일
- 식사 제공 : 교회 제공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 2독	확인
8월8일	월	사 48-53		수 15-19	
8월9일	화	사 54-57		수 20-24, 샛 1-3	
8월10일	수	사 58-61		샛 4-8	
8월11일	목	사 62-66		샛 9-14	
8월12일	금	렘 1-4		샛 15-21	
8월13일	토	렘 5:1-7:29		룻 1-4, 삼상 1-3	
8월14일	주일	렘 7:30-12:17		삼상 4-11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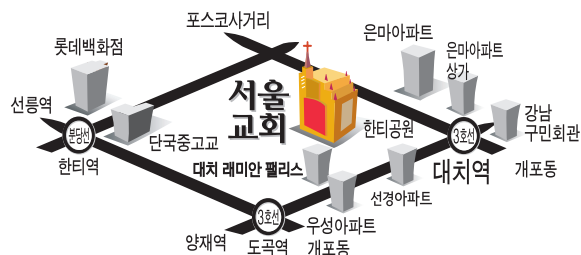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8월 절정에 이른 무더위에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증언하며 살게 하소서.
2. 12일(금)~13일(토) 아가페타운에서 진행되는 청년부 수련회에 영적 부흥의 파도가 치게 하시고, 성령충만하여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게 하소서.
3.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시고, 세계적인 경제불황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우크라이나를 비롯하여 세계 여러 곳의 전쟁과 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임하게 하소서.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4시 3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